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김치 세미나 - 2천년대를 향한 도전의 장 되길

불가리아 등 동구권 7개국에서 31명 참가

동구권 선교의 첫 열매인 제1회 KIMCHI 세미나가 지난 11월 2일 개최되었다.

10월 31일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반도유스호스텔에 여장을 풀었고,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정식 등록 절차를 받았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 7개국에서 온 모두 31명의 참가자들은 2일 저녁 7시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렸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11일까지 “2천년대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유수의 신학자들의 강의와 국제 선교 전



락 회의를 갖고 자국 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들은 또한 오늘 각 부서에서 간증을 하여 충현교회 성도들과 영적 교제도 나누게 된다.

이번에 동구권 7개국과 함께 초청을 받은 동독의 목회자들은 서독과의 통일로 더 이상 동구과 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였다.

김기동 목사 집회에

“충현교회 후원”운운은 거짓 귀신론을 주장하여 장로교단으로부터 이단시 되고 있는 김기동 목사(성락교회 시무)가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 인도하는 집회를 우리 충현교회가 후원한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김 목사 측에서 우리 교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단지나 프랭카드 등에 우리 교회의 명칭을 무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그 집회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밝힌다.

절제운동본부 간담회 가져

우리 교회 절제 운동 본부는 지난 10월 28일 선교관 401호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유혜신 간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우기전 장로와 운영 위원들은 교회·가정·사회에서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실천 강령을 발표하여 성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절제 생활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세 확장으로 교구 18개로 분할 증설
외국인을 위한 국제 교구도 신설

교회는 증가하는 교인들이 교 분화 하여 분할 편성하고 영어와 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교역자 일본어 예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세심한 관심 아래 신앙 생활 들을 돌보기 위한 국제 교구도 신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증설 설한다.

의 14개 교구를 18개 교구로 세

교구	지	역
1	강남구(역삼1동)	
2	서초구(반포동과 잠원동을 제외한 전지역)	
3	강남구(대치동, 개포2, 3동, 일원동, 새곡동, 자곡동, 율현동)	
4	강남구(학동,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5	영등포구, 구로구, 경기도(광명, 안양, 수원, 시흥, 안산, 의왕)	
6	동작구, 관악구, 과천시	
7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김포, 부천, 인천)	
8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경기도(문산, 고양군)	
9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상계1~7동), 경기도(의정부, 북양주)	
10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상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경기도(구리시, 미금시, 남양주)	
11	강동구, 경기도(하남시, 광주군)	
12	송파구(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마천동, 거여동), 성남, 용인	
13	성동구 전지역	
14	용산구, 중구	
15	서초구(반포본동, 반포1~4동, 잠원동),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16	강남구(역삼2동, 도곡1, 2동, 개포1, 4동)	
17	송파구(중남동,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국제	서울시 전지역	

북방선교를 위한 특별기도회에 적극 참여를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

북방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내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성도들은 철의 장벽을 헐기 전, 먼저 겸손히 마음의 벽을 헐고,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세계 북을

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여, 북방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해, KIMCHI 세미나를 위해, 교회·국가·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무직 국장급 인사 발표

기획조정실장 이승선 장로, 사무국장 이태규 장로,
관리국장 오진국 장로

사무국 편제가 기획조정실, 사무국, 관리국의 1실 2국으로 조정 개편됨에 따라, 당회는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기획조정



이 승 선 장로



이 태 규 장로



오 진 국 장로

91년도 인사 조정 일부 변경

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제 변경하고, 권사회 회장단을 아래 직회 차관관리부 부장, 제자훈련 와 같이 인준하였다.
원 원감과 부원감을 아래와 같이

부	서	명	직	책	사	면	임	명
기	획	위	원	회	위	원	박	승
구	제	위	원	회	위	원	문	홍
전	도	위	원	회	위	원		정
예	배	위	원	회	위	원	박	치
제	직	회	차	관	리	부	문	홍
직	장	전	도	교	육	부	이	병
일	본	어	교	육	부	부	장	송
제	자	훈	련	원	원	감	오	정
					부	원	김	재
					회	장	전	순
					서	기	전	인
					회	계	장	영
					제	1	지	회
					제	2	지	회
					제	3	지	회
					제	4	지	회
권	사	회					김	상
							한	영
							방	계
							운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10:35)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율법에 관하여 언급 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10:35)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문제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할 수 있고, 수많은 토론이 가능한 시점에서 성경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중요한 대질입니다.

1. 성경의 무오성을 의미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은 성경에는 거짓이 없고 잘못이 없으며 성경은 완전한 것으로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생활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이중 인격이 아닙니다. 진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 성경의 권위를 의미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은 또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시험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1~11).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지혜를 동원해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한번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아내가 두 명인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면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모두 성경을 이루는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곧 성경의 완성이 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무도 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함축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면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어라”라는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예언한 것입니다(사 61:1, 2).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5:39).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우물쭈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며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은 많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무오성까지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을 지키려다가 순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를 범했다

고 통곡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모두 무너진 마당에 성경의 권위조차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들은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호소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 무오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교리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무오성이란 성경은 틀림이 없을 뿐 아니라, 오류를 소유할 수도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느냐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마귀가 한 말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죄와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

성경의 저자는 일어난 사건 전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을 신학적으로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전체 내용만 영감설로 알려 주겠다는 전체 영감설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설로 알려 주겠다는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영감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을 주실 때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것을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어나, 붙여, 띄어쓰기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을 헬라어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까지 잘못된 것이 없거나 영감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신약 성경은 원본은 발견되지

않고 5월 여 종류의 사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본들 간에 틀린 부분이 천 단어 중 한 단어 정도이고 그런 부분들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도 틀림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정확무오 하다는 것은 성경의 원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글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리에 대한 도구로써 언어의 기능이 부원될 때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리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종교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불과 같은 나의 말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경은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항하는 사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서지기 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

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권위, 영원한 진리, 영원한 힘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과 은총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생명의 감동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직을 정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설계하고 표준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KIMCHI 세미나 참가국 기도정보

북방
선교를 위해
기도 합시다!



- 불가리아**

 -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불가리아인들이 구주를 알 수 있도록
 - 문화 통합에 강요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들의 정규적인 신앙 훈련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 헝가리**

 - 가톨릭교가 우세한 이 지역에 복음주의 개신교가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 기독교 방송 선교가 꽃필 수 있도록
- 폴란드**

 - 폴란드 출신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교의 영향이 적도록
 - 소수의 복음적인 신자(총 인구의 0.2%)들을 위해
- 체코슬로바키아**

 - 통제되었던 이 땅이 서서히 개방되므로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 루마니아**

 -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으므로 선교하기가 유리하다.
 - 그리스 정교가 67%를 차지하므로 더 많은 복음이 전

파되도록
3. 기독교 방송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한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 소련**

 -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90년 9월).
 - 몇 년간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였다.
 - 여러 민족 가운데 회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 한국 최초로 러시아 선교회에서 세운 예수교 사할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극동 방송국에서 보내는 선교 방송으로 더 많은 재소교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 유고슬라비아**

 -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되고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 극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특히 그들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사역자들의 지도력 훈련을 위해
 - 순회 전도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유고에 온 외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안석렬 선교사 가족 체류 허가 받아
성경 공부로 신앙 쌓는 수리남 한인 교회

수리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안석렬 선교사가 9월 30일자로 선교보고 서신을 보내왔다. 지난 4월 수리남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이후, 4개월만인 8월에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안 선교사 가족은 오는 92년 8월 21일까지 수리남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수리남 한인 교회에서 지난 4월부터 우리 교회 새가족부의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해 오던 “장년 성경 공부” 과정이 끝났다. 요즈음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있다. 또 안 선교사는 우발적인 사고로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교포를 방문하여 돌보고 있다. 건축 중인 교회 신축공사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도로써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수리남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안 선교사는 하루 속히 정치·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도록 기도해 줄 것과 한인 교회의 부흥과 교회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였다.

장학생들로부터 감사의 편지 답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신학생들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받고 감사하는 편지들이 답지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핏튼대학원 그리고 총회신학대학원과 합동신학교에서 신학 교육과 경건 훈련을 받고 있는 총현 장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장학금을 보내 준 총현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독자란 **님을 향한 기도** 이 금 효 (청년 1부)

님을 찾고 있는 날이면
무엇이라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Вам만 찾으며 그리워할 따름입니다.

님 만나기를 원하는 날이면
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님 또한 부르시고 멀리서 손짓을 합니다.

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날이면
님은 두 손을 벌리고 빛나는 빛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님을 잊고자 하는 날이면
님은 슬퍼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며

님에 간절하고 애타운 사랑을 즐거워하며...
다른 Вам을 찾으려 하면
님은 많은 것들로 막으시며
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님을 떠나고자 하는 날이면
님은 폭포수 같은 눈물로 강을 만드십니다.
강 위에 떠서 갖은 노력으로 건너려 떠나지만...
님은 조국에서 마저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님의 끝없는 사랑에
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호수가 됩니다.
님은 다시 돌아온 날 어여쁘 사랑하시어
눈물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님의 끝없는 사랑에
하염없이 기쁜 희망의 미소를 짓고
님의 사랑을 증거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님을 사랑하며
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시기를,
님의 이름으로 깊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세기등

“교사의 멋”

황영일 집사
(제2교구)

몇 해 전, 교사 회의에서 한 학생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교사들은 그 학생에 대하여 교회 학생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량 학생이라고 질책하였다.

아무말 없이 듣고만 있던 담임 교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하였다.

그날부터 그 교사는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와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로 엉켜 붙어 맴돌기를

거의 6개월.

어느 덧 여름 수양회가 다가오게 되었다. 교사들은 혹시라도 그 학생이 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시선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순서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떻게 그 학생이 변화되었느냐고 묻는 교사들에게 그 담임 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듬해에 그 교사는 다른 부서로 떠났으나 지금도 그의 흔적이 한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던 방법을 본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흔히 말썽을 부리는 학생에게 “문제 학생”이라고 낙인 찍어 놓고 단념해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문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교사, 문제 학부모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

충현의 학부모들이여, “내 자녀만은” 하고 자위를

해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자. 또 자녀의 어머함을 보기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자녀의 바른 교육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훈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절망에서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직 우리를 중에는 어떻게 교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봉사를 못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머뭇거리는 분도 있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교육부서 교사실의 문을 두드려보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이 “교상한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사로 봉사를 할 때 세기등의 하나인 천국일꾼 양성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으로 믿는다.

다음호 세기등은 한송규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온찬양대 미8군 교회와 교환 찬양

영어 예배 시온찬양대는 지난 10월 28일 미8군 교회와 상호 교환 찬양을 통하여 보다 넓은 성도의 교제와 교회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창단 2주년을 맞는 시온찬양대는 세계를 교구로 삼는다는 교회의 기본 방침에 따라 국제 선교의 기회를 넓히고 또한 외국인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다.

당일 충현교회에서는 40명의 시온찬양대원들이 미8군 교회에



서 찬양(합창 2곡, 독창 1곡)을 담당하는 한편, 미8군 교회의 찬양대는 우리 교회 9시 영어 예배의 찬양을 상호 바꾸어 담당함으로써, 뜻 깊은 교환 찬양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11일에 청년 연합 초청 집회

우리 교회 청년 I부와 II부는 오는 11월 11일 연합으로 청년 초청 전도 대집회를 소석관 507호에서 갖기로 했다.

앞으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청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각성하고 양적으로 부흥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이 집회에는 모든 회원이 한 명 이상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어느 부서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소속 청년 전원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탁아부 학부모 초청 좌담회 열어

탁아부는 지난 10월 31일 수요일 I부 예배가 끝난 후 본당 지하 아멘홀에서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먼저 학부모와 교사들은 I부 순서로 민경애 집사(충현 유아원 원감)를 강사로 초빙하여 "0세에서 24개월 아동의 능력과 관심"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 특강에서는 출생 후 개월 수에 따라 나타나는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징들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강이 끝난 후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에게 평소에 기대하고 있던 바를 발표하였는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친교를 다지고, 탁아부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등부 시화전 열어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심분 발휘하여 준비해 오던 시화전이 지난 10월 28일에 소석관 1층 복도에서 있었다.

이 시화전은 27일에 있었던 제17회 시와 찬양의 밤과 함께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서를 아름다운 시와 그림에 담았다. 작품 중에는 이중윤 위임목사의 서예 작품과 이병학 장로의 그림도 함께 전시되었다.

초등6부 -안드레 운동 제1차 초청전도집회 가져



지난 9월부터 전도 운동인 "안드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초등6부는 지난 10월 28일 제1차 초청 전도 집회를 가졌다.

안드레와 베드로(전도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입장함으로써 시작된 이 초청 전도 집회는 김창수 목사의 설교와 중등부 싱어 룬 팀의 특별 찬양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열성적인 전도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소석관 403호에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1차 목표인 백명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초등6부의 학생들은 태신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기로 했다.

■ 절제운동본부 취지문

청지기적 신앙 고백과 생활 회복을

나라 산림과 국민들의 형편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적 미숙에서 오는 잘못된 가치관과 물질관은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그리고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병든 사회와 민족의 장래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구조적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로는 안된다.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여 바르게 절제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에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한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철저한 청지기적 신앙 고백과 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삶을 말한다. 충현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절감하여, 먼저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회복과 이사회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초등2부

장기결석자에게 사랑과 관심

초등2부는 지난 10월 18일 "잃은 양 찾기 운동"의 막을 내렸다. 지난 9월 초부터 지난 주일까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기도 모임을 가졌고,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엽서와 전화 등을 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로 5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다시 출석하게 되어 기쁘다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교사들의 관심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날은 특별 초청으로 고등부 싱어 룬 팀이 특별 찬양을 불러 기쁨을 더해 주었다.

유치부 학부모 구연동화 발표

지난 28일 유치부에서는 "학부모 구연 동화" 발표회가 있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각 5명 이상씩 참여하였는데 사회 교육에서는 열심히 학부모들에게 교회학교 교육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와 또한 성경 말씀 등을 원고로 옮겨 흥미 있고 재미 있게 인도하였다. 오늘 유치부 집회 시간에 한번 더 발표회를 갖는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4 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경 : 행 16 : 6~10

요절 :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 : 9)

찬송 : 273, 277

설 명

1. 제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은 일행과 함께 제2차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이 환상을 본 후에 그들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곧 바다를 건너 유럽(마게도냐)으로 갔습니다. 이로써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2.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1) 선교는 성령께서 계책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십니다.
- 2)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3) 현지인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체없이 도와야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굳게 닫혔던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교회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뿐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질 문

1. 바울 일행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곳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낸 곳은 각각 어디입니까(지도를 펴서 알아 봅시다)?
2. 현지인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3.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행 13 : 1~3, 롬 15 : 30~32, 살전 5 : 25, 히 13 : 18)?
4. 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북한과 김치(KIMCHI)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시다.